

건축과 함께하는 시의 세계 ①

詩로 지은 집

House created by a poem

장양순 | 건축사사무소 창건축, 한서대 겸임교수

■ 개재순서

총론

집터

고향집(生家)

집짓기

집과 가정

일상과 회상

빈집

동물의 집, 식물의 집

상상의 집, 영혼의 집

아파트와 빌라

각론

지붕

기둥

벽

문

창

방

마루

처마

굴뚝

계단

담장

들어가는 글

미국의 건축사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위대한 건축사는 반드시 위대한 시인이 되어야 한다”고 건축과 시의 상관가치를 동일 선상에 두었다. 호주의 건축사 자이들러는 이외른 우촌의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 대하여 “건축은 하나의 언어이고, 그 언어를 말하는 것은 건축사들이다.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는 절묘하게 절제된 몇 마디 단어로써 표현된 시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그리스의 기원 전 사람 시모니데스(Simonides)의 “시는 말하는 그림이며, 그림은 말 없는 시”란 말이나, 소동파(蘇東坡)의 시중화(詩中畫), 화중시(畫中詩)로 표현되는 시서화일률론(詩書畫一律論)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그림도(圖)와 그림화(畫)는 같이 쓰이기 때문이다.

건축과 시는 예술이라는 범주 안에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만 한국에서 일반인들이 받아들이는 느낌은 사뭇 다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물을 재테크 수단인 부동산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며, ‘관광’이란 단어가 나와야만 겨우 예술을 입에 담는다. 이에 반하여 시는 예술로 생각하지만, 학교를 떠나면 특정한 애호가들의 사치품쯤으로 치부되고 있다. 또한 건축과 음악, 건축과 미술을 연관시킨 저서들이 나오고 있는데, 선진국과 달리 건축과 시 분야에서는 전무하다.

필자는 신시가 발표된 1910년 최남선의 ‘해에서 소년에게’로부터 근작 까지 필자가 접할 수 있는 수만 편을 섭렵하고, 그 중 집에 관한 시를 취합하였다. 이를 씨줄 삼고 건축을 날줄 삼아 집이란 총론과 지붕, 기둥, 문, 창 등 가론으로 나누어 옷감을 짜려고 한다. 이 글이 건축에 대한 상식을 높임으로써 부동산으로만 편향되어 있는 건축에 대한 인식을 예술로 승화시키고, 관광지에서 흔히 접하는 건축에 대한 감상의 안목을 높여 즐거움을 더하게 하는 열매와, 시의 세계가 친근하게 다가와 보편화, 대중화되는 일거양득을 기대한다. 또한 건축가는 시에 대하여, 시인은 건축에 대하여 서로의 세계를 알 수 있는 매개체가 되고, 이로 인하여 양쪽 모두 시너지 효과를 거두리라는 확신도 있다.

직조공의 솜씨가 서툴러 무늬가 더러 정교하지 못하고 울에 상처 내는 일이 있을 터이나, 뛰어난 후학들이 보다 아름다운 천을 만드는데 바탕 노릇은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여 용기를 내었다.

※주기 : 시에 있어서 /는 줄바꾸기,
//는 연바꾸기, ///는 전략,
중략, 후략 시 사용.

*는 시집명

총론

예나 지금이나 사람에게 있어서 의(衣), 식(食), 주(住)는 삶의 필수사항이다. 2000여 년 전의 시경(詩經)에도 **오막사리 집일망정 / 다리 뻗고 살리로다 / 샘물 넘쳐 흐르니 / 주림도 즐길 수 있겠네.**¹⁾라 하여 먹는 것은 물로 대신할 수 있으나 오막살이일망정 집은 있어야 살 수 있다고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삶에 필수적인 집에 대하여 건축사들은 대체로 “건축은 항상 국민적이며 또한, 개인적이다. 그러나 개인-민족-인류라는 세 개의 동심원 중에서 최후의 그리고 최대의 원이 다른 두개를 동시에 포괄하며”(Walter Gropius) “건축을 생각이 있는 것으로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생명이 있는 것으로서 복잡성과 유기성을 갖추어야 한다”(Victor Horta)는 명제 아래, “자연은 신이 만든 건축이며, 인간의 건축은 그 것을 배워야 한다”(Gaudi)는 자세로 작품을 만들어 왔다. 이러한 집에 대하여 시인 함민복²⁾은 집에 대한 패설에서 다음과 같이 읊조린다.

‘집’이라는 글자를 읽어보면 발음 속에 공간이 완성되고 그 공간엔 사람이 살 수 있을 것 같다. // 집이 없이 ‘떠난다’는 말이 가능할까. //

집 속에 살던 내가 집을 떠나면 집이 내 속에 들어와 산다.///

- 함민복 ‘집에 대한 패설’

내 집이든 남의 집이든 집이 없으면 하루도 견디기 어려운 우리들. 그 곳이 대도시이든 농어촌이든, 그 형태가 단독주택이든 아파트이든 또한 그 재료가 나무나 철근콘크리트 또는 벽돌이든 간에, 내가 자고, 먹고, 쉬는 곳이 집이다. “사람은 집을 만들고 그 집은 사람을 만들어 간다”(Winston Churchill)는 집, 생각 없이 살아오던 집에 대하여 시와 함께 관찰과 사색의 나들이를 떠나보자.

집터

우리네는 예로부터 풍수지리설에 의하여 음택인 묘자리와 함께 양택인 주택에 대한 입지선정에 정성을 들였다. 그래서 집터 자리가 있는 곳이나 묘터가 있는 곳은 땅 값이 그 가치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다. 배산임수(背山臨水)에 좌청룡 우백호로 낮은 산들이 둘러싸고 뒷산은 조산까지 높게 이어지며 앞쪽에는 안산이 적절할 시야에 앉아 있는 남향받이 집터를 이상향으로 여겼다. 이

러한 집터는 모양새(形局)에 따라 금계포란형이나 연화부수형 등 여러 가지 동식물 형태로 분류하여 길흉을 따졌다³⁾. 길지(吉地)가 있다. 그렇다면 시인들은 어떤 집터를 이상향으로 생각했을까?

김소월⁴⁾은 들가에 떨어져 나가 앉은 메기습의 / 넓은 바다의 물가 뒤에⁵⁾나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 빛 /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⁶⁾가 들리는 곳을 원했고, 김동환⁷⁾은 흰 모래 앞 강변에 우리 집을 지을까 /// 뒷 강터 버들밭에 우리 집 지을까⁸⁾ 고민하고, 김광섭⁹⁾은 저 멀리 보이는 산기슭을 탐하여/상록수 가운데 나의 집을 짓고 싶어한다. 도시화가 될될 일제시대인데도 시인들은 강변이나 푸른 산 속을 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들이 살았던 집에 대한 시심은 어떤 것일까. 평안도 구성이 고향인 김소월은 ‘풀따기’에서 **우리집 뒷산에는 풀이 푸르고 / 숲 사이의 시냇물, 모래바닥은 / 파아란 풀 그림자로** 자신의 집을 그리고, 김동명¹⁰⁾은 연작 시 ‘나의 집’에서, **내 뜰은 요행 술밭에 연(連) 했고 / 나의 손끝은 동해의 푸른 물결에 닿으며, 풍선(風船)이 한 채 / 나의 쌍창(雙窓)을 향하여** 돛을 나린다. 고 묘사하고 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를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

정지용¹¹⁾은 ‘향수’를 통하여 충북 옥천 자신의 집 앞 정경을 그리고 있다.

20세기 최고의 건축사 르 코르뷔지에는 ‘건축은 인간을 담는 그릇’이라고 정의하였다. 집의 역사는 자연동굴 등 수혈주거로부터



사신사(四神砂) 개념도

1) 국풍(國風), 제12 진풍(第十二 陳風)138, 衡門(衡門)衡門之下 可以棲遲 泌之洋洋 可以樂飢

2) 함민복 62년 충주생. *말랑말랑한 힘. 미안한 마음. 눈물을 자르는 눈꺼풀처럼 외

3) 사신사(四神砂) 개념도 : 최창조 <한국의 풍수사상>

4) 1902. 평북 구성. 본명 정식 *진달래꽃.

5) '나의 집' 부분

6) '엄마야 누나야' 부분

7) 1901. 함북 경성. 호 파인 *국경의 밤. 승천하는 청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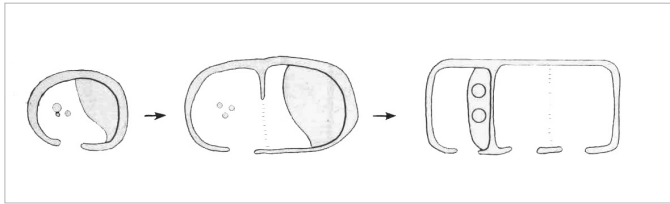
8) '즐거운 우리집' 부분

9) 1906. 함북 경성 *성북동 비둘기

10) 1900. 강원 강릉 *내 마음. 진주만 외

11) 1902. 충북 옥천 *정지용 시선

터 시작되었으며, 한 가족이 자고, 먹고, 쉬는 삶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주거공간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위엄 있는 관공서나 장엄한 종교건축이나 최고층을 자랑하는 현대의 업무 상업 공간 이전에 가장 작은 공동체로서의 주택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것이 차츰 기능별로 분화되었으니, 부엌, 방, 대청의 삼간이 가장 원초적인 기능분화라 할 수 있다.¹²⁾



주택발전 계통도. 한국건축양식론. 정인국

이러한 집의 형태는 이후 ㄱ자나 ㄴ자형태의 곱패집으로, 다시 ㄷ자나 ㄹ자형태로 발전하여 왔으며, 지배계층인 반상가에서는 별당, 정자, 사당 등 부대건물을 더하게 되었다.¹³⁾ 또한 형태도 지역이나 지세, 필요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건축되었다.



담양의 곱전재

누구든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집은 크든 작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평생 그리며 살게 된다.

고향집(生家)

집으로 가는 길은 / 언제나 / 설렘이다. 집으로 / 가는 길은 / 부푼 풍선 하나 / 들고 가는 길이다.¹⁴⁾ 집으로 가는 길을 걷다 보면 어린 시절의 모든 기억들이 되살아나고, 늙어가는 오늘에야 깨닫는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온다. 생명의 탄생과 죽음, 생일, 명

절, 결혼 등 가족 인척의 통과의례, 그래서 학교 길의 동네 아이들에게서 어린 날의 싱그러움을 보기도 한다.

휘어진 시골길 따라가다가 보니
길이 왜 곡선으로 나 있는지 알겠네 //
아쉬워라, 논길에서 뱀을 만난 듯
진흙탕을 직선으로 달려가다 넘어진 친구들//
울퉁불퉁한 길을 따라가면서
사선으로 어깨가 기운 사람들을 만나보니
늙어가는 나의 등이
왜 비탈로 저물어 가는지 알겠네 //
노을을 날개에 묻히고 온 새가
추녀 끝에 흐린 전구불로 매달리는 흙집
입매가 감나무 잎처럼 둥근 영정사진을 꺼내
해와 달이 둥근 비밀을 물어야겠네.

- 공광규¹⁵⁾ '시골집에 가면서'

바람과 놀고 있는 / 시골 아이들
머리카락 살랑일 때 마다 / 부서지는 오후의 햇살 //
진홍빛 분꽃을 따 / 꽃술 당겨 씨방으로
귀걸이 하고 / 부모님 계신 / 집으로 가는 길, //
공기마저 살찌 있구나! / 가슴 가득
맛있어라 / 맛있어라 //
전나무 사이 길 / 아직도 풍성한 / 남은 여름의 노래 //
눈을 뜨고 / 걸어 가다가
눈을 감고 / 걸어 가다가 ///

-강방영¹⁶⁾ '집으로 가는길'

어린시절 천방지축으로 동무들과 어울리며 치기 어린 짓을 하던 고향집엔 친구들과 할머니에 대한 추억이 있다.

뒤울안 보루쇠 열매가 붉어오면
앞산에서 땀방울이 울었다.///
아랫말 옷 동리가 넓어 뒀던 촌에선
단오의 명절이 한껏 즐겁고
모닥불에 강냉이 구워먹던 아이들
곧장 하늘의 별세기를 내기했다.

-노천명¹⁷⁾ '생가'

우리 집 동편 담 밑에는 돌창을 파고
서편 담은 걸집 담벼락으로 대신하였소

12) 주거형태의 진화 정인국 교수 한국건축양식론

13) 담양의 곱전재

14) 이문조 / 집으로 가는 길

15) 1960. 충남 청양 / 말뚝 한덩이, 대학일기, 소주병 외

16) 1956. 제주 *집으로 가는 길, 집으로 가는 길, 인생학습, 은빛 목소리 외

17) 1912. 황해 장연 *노천명 시집, 대표시 사슴

그 담에 붙어 있는 닭이 화를 가리운듯이
비스듬히 뺏어난 살구나무, 첫 여름에
막대기로 떨구는 선 살구의 신맛이
나의 좋아하는 것의 하나이었소 ///
해마다 추석이면 으레히 햇 기장쌀에
밀길구미 길구어 노트를 지지더니
늙으신 할머니 지금은 누구를 위하여...

-주요한¹⁸⁾ '우리집'

나무 끝에 빗소리/ 오나 안오나
걸어둔 귀두 쪽을/ 매미가 물어뜯고
괴로워하지 말라고/ 오는 소나기
땀돌 위에 /신발짝 뒤집어 놓고
들창문 달고 나서/ 혼자 생각하느니
남의 빵 발에 들어가 / 오디 훑쳐 먹은 일

-안도현¹⁹⁾ '산가'

꿈에도 생시에도 눈에 선한 우리집²⁰⁾은 마음대로 오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이며, 살아 있는 한 그리워하고 돌아서지 못하는 곳이
기도 하다.

떠남도 허락하고 / 돌아감도 허락 한다
떠나는 길과 끝나는 길이 / 만나서
모든 도중의 하늘에 / 별을 빛나게 하고
흘러가는 모든 것들을 / 한 번의 폭포로 노래하게 한다.

-정현종²¹⁾ '집'

살아있는 한 돌아서지 못한다
꼬집으면 / 확, 하고 꽃 터질듯한 자리
누구나 / 모래바람 일으키며 떠났다
허기진 애증으로 군데군데 살이 떨어진 채 돌아와
그 원형에 영혼을 다시 대 보지만
닿기만 하고 / 명이 지워지지 않는 자리."

-최문자²²⁾ '생가'

이런 고향마을에는 중심에는 종가가 자리하고, 그곳엔 아버 죽
어 할아버지에게 격대교육을 받고 있는 손자의 모습도 보인다.

내 집이 아니라 / 너 집이라
나르다 얼른 도라오라 / 처마 난간(欄干)이
너들 가여운 소색임을 지음(知音)터라. //

내 집이 아니라 / 너 집이라
아배 간 뒤 머난 날 / 아들 손자 잠도 깨우리
문틈 사이 너는 몇 대째 서워 우느뇨

-김영랑²³⁾ '집'

고향은 시골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특히 도시의 현대화는
모든 것을 바꿔놓아 옛날의 추억을 보듬어보기는커녕 찾아가기
도 어려울 정도로 변모하고 있다. 권대웅²⁴⁾은 '휘어진 길 저쪽'에
서, 변모해 버린 어릴 적 살던 동네에서 돌아가신 할머니까지 그
려보고 있다.

/// 어디론가 세월도 이사를 하는가 보다 / 어릴 적 내가 살던
동네 / 기억 속에는 아직도 솜틀집이며 그 옆 이발소며 / 이빨을
뽑아 지붕위로 던지던 기와의 너울들 / 마당을 지나 아장아장 뒷
마루로 걸어오던 / 햇빛까지 눈에 선한데 / 정작 보이는 것은 다
른 시간의 사람들뿐 / 저기 부엌이 있던 자리 / 지금은 빌라가 들
어선 자리 / 그 이층 베란다쯤 다락방 있던 자리 / 엄마가 저녁밥
먹으라고 부르는 소리가 / 가슴에 초승달처럼 걸려있다 / 몇 년
만에 아기를 업고 돌아온 고모와 / 고모를 향해 소리 지르던 아
버지는 / 말 없이 펄프질 하던 할머니는 / 그 마당 식솔과 음식들
그대로 끌고 / 모두 어디로 갔을까///

집짓기

집을 짓기 위해서는 우선 지목이 대지인 땅이 있어야 하며, 건축
사사무소에서 건축사에게 설계를 의뢰, 설계도서가 완료되면 해
당관청에 설계도서를 접수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후 시공회사에게
견적을 의뢰한 후 적절한 회사와 시공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시
작한다. 공사 중에는 건축사가 감리를 하게 되며 공사가 완료되면
허가관청에 사용승인을 신청하고 사용승인 후 등기절차를 마칩으
로써 재산권을 행사하게 된다. 문장으로는 쉽지만 건축설계과정
과 공사과정은 복잡하다. 그러나 이와 같이 복잡한 절차와 달리 시
인들은 집도 쉽게 잘 짓는다.

비바람 막아주는 지붕 / 지붕을 받쳐주는 네 벽
네 벽을 잡아주는 땅 / 그렇게 모여서 집이 됩니다
따로 떨어지지 않고, / 서로 마주보고 감싸 안아
한집이 됩니다 / 아늑한 집이 됩니다

-강지인²⁵⁾ '집'

건축은 유기적이지 않으면 부실건물이 된다. 시인은 집도 가족

18) 1900. 평남 평양 *불놀이

19) 1961. 경북 예천 *간절하게 참 철 없이, 그리운 여우

20) 김소월 - 우리집

21) 1939. 서울 *섬, 풀잎은 공중에 글을 쓴다

22) 1943. 서울 *사과 사이사이 새, 달고 싶은 곳, 울음소리 작아지다

23) 1903. 전남 진도 *본명 윤식, 김영랑 시선집

24) 1962. 서울 *당나귀의 꿈, 떨림, 살아가는 동안 깨달은 한마디

25) *할머니 무릎 퍼지는 날

도 마주보고 감싸 안아야 된다는 튼튼해진다는 공통점을 집짓기로 표현하였다. 건축의 진행과정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이 시와는 달리, 노인은 자신이 그리던 이상향의 집을 마음속에 짓는다. 젊은이도 달빛과 풀벌레소리를 엮어 벽과 천장을 만든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집인가.

그는 언제나 황량했던 마음을 다져 그 속에 집을 짓기 시작했다

먼저 집 크기에 맞춰 단단한 바탕의 주춧돌 심고
세월에 알맞은 나이트의 소나무로 기둥을 세웠다
기둥과 기둥 사이엔 휘파람으로 울던 가지들 엮어 채우고
붉게 잘 익은 황토와 잘게 썬 벚짚을 섞어 벽을 발랐다
벽이 마르면서 갈라진 틈새마다 스스, 풀벌레 소리
곱게 대패질한 참나무로 마루를 깔고도 그 소리 그치지 않아
잠시 앉아서 쉴 때 바람은 나무의 곁을 따라 불어 가고
이마에 땀을 닦으며 이제 그는 지붕으로 올라갔다
비 올 때마다 빗소리 듣고자 양철지붕 떠올렸다가
늡으면 찾아갈 길 꿈길뿐인데 밤마다 그 길 젖을 것 같아
새가 뜨지 않도록 촘촘히 기왓장을 올렸다
그렇게 지붕이 완성되자 그 집, 집다운 모습 드러나고
그는 이제 사람과 바람의 출입구마다 준비해 둔 문을 달았다
가로 세로의 문살이 슬픔과 기쁨의 지점에서 만나 틀을 이루고
하얀 창호지가 팽팽하게 서로를 당기고 있는,
불 켜질 때마다 다시 피어나라고 봉숭아 바른 꽃잎도 넣어둔
문까지 달고 그는 집 한 바퀴를 둘러보았다
못 없이 흙과 나무, 세월이 맞물려 지어진 집이었기에
망치를 들고 구석구석 아귀를 맞춰 나갔다
토닥토닥 망치소리가 맥박처럼 온 집에 박혀 들었다
소리가 닿는 곳마다 숨소리로 그 집 다시 살아나
하얗게 바랜 노인, 그 안으로 편안히 들어서는 것이 보였다

-길상호²⁶⁾ '그 노인이 지은 집'

집 한 채를 짓는다, 한밤 내 / 밀려오는 잠을 천장으로 떠밀며
마음의 야트막한 언덕, 고즈넉한 숲 속에
나지막한 토담집 하나 빗어 앉힌다.//
이따금 무거운 마음 풀어 내리던 / 청솔 푸른 그늘,
언제나 그늘 드리워 주던 그 나무들로
기둥도 서까래도 만들어 둥근 지붕의
집을 세운다. 달빛과 별빛,
서늘한 바람 몇 가닥 엮어
새소리 풀벌레 소리도 섞어 / 벽과 천장과 방바닥을 만든다//
마음의 야트막한 언덕, 고즈넉한 숲속에

나지막이 앉아있는 토담집 하나
풀잎에 맺힌 이슬처럼 깨어있을
마음의 집한 채 가만가만 끌어 앉는다.

-이태수²⁷⁾ '마음의 집한채'

노인은 세월이 맞물려 지은 마음 속의 집, 자신의 숨소리로 살아난 집에 편안히 들어서고 젊은이도 마음의 집 한 채를 끌어안는데, 어린이들은 마음속이 아니라 도화지를 펼쳐놓고 수 십 가지 색깔의 크레파스를 이용해 내가 살고픈 집을 그린다.



2011 어린이와 함께하는 제16기 시민건축대학 수상작



2012 어린이와 함께하는 제17기 시민건축대학 수상작

하얀 도화지에 내 집을 지어볼까
빨간 지붕과 둥근 창문
축구도 하는 넓고 푸른 마당
창가엔 마음에 드는 별 하나 걸고
뒤뜰에는 사과나무도 있어야겠지
늘 원해도 반대만 하는
강아지도 세 마리쯤 키우고//
나지막에 커다랗게 나를 그려야지
바로 내가 이집 주인이니까.

-신복순²⁸⁾ '내 그림'

가난한 젊은 시인은 내 집이 없기에 인터넷에서 마우스로 딸깍 딸깍 두드리면 대문이 열리고 꽃밭이 가득한 번지 없는 '즐거운 나의 집'을 컴퓨터 화면에 짓고 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둥지가 있는데
세상에 나서 어디 제 집 한 칸 갖기가 쉬운 일인가
인터넷 무료계정으로 세운 나의 HOME

26) 1973. 충남 논산 *오동나무 안에 잠들다, 모르는 척

27) 1947. 경북 의성 *침묵의 푸른 이랑, 그집은 동글다, 회화나무 그늘 외

28) 아동문학가

마우스로 딸각 딸각 한 두 번만 두드리면 대문이 열리고
 바탕화면엔 꽃밭이 가득!
 즐거운 곳에선 날 오라 하지만
 사람이 태어나 반경 10km 정도 밖에 더 움직이겠는가
 그 안에서 살다가 영업마감하는 것인데
 두세평 남짓한 월 셋방 원룸에 눕는 밤이면
 호적에도 주민등록증에도 없는
 위성 GPS도 찾지 못하는 나의 HOME,
 나 같은 백수가 귀가해야 할 집은 세상에 없으므로
 새벽까지 하는 게임은 맛있고
 생각하면 군침이 나온다
 의자에 몸이 깊이 박힌 사람들끼리
 밤새 포커나 고 스톱을 칠 때
 우리는 이미 한 군락을 이루고 수많은 개체수를 확보한 새로운
 종이다.(마우스를 클릭하면)
 캄캄한 밤 너머 침침한 안을 쓰고 앉아 킬킬거리는 혼령 같은,
 해골 같은
 (당신이 보인다)//
 나이 서른여섯에 처음으로 가져보는 방 한 칸//
 창을 열고 밖을 내다보면
 캄캄한 인터넷 밤하늘의 공기가 참 맑다
 -최금진²⁹⁾ '즐거운 나의 집'

전반적으로 예술가들은 경제능력이 약한데 그 중에도 시인들이
 유독 심한 것 같다. 시 한편의 값이 적다보니 그럴 수 밖에 없겠
 지만, 그래서 그런지 집 집을 등에 짊어지고 다니는 달팽이를 부
 러워한다.

달팽이는 날 때부터/집 한 채씩 지고 왔으니
 월세 살 일 없어 좋겠습니다!
 전세 살 일 없어 좋겠습니다.
 몸집이 커지면 / 집 평수도 절로 커지니
 이사갈 일 없어 좋겠습니다!
 사고 팔 일 없어 좋겠습니다!
 뺏속까지 얼어드는 / 엄동설한에
 쫓겨 날 일 없어 좋겠습니다!
 불 지를 놔 없어 좋겠습니다!
 -김환영³⁰⁾ '달팽이집'

///나의 마땅한 거처는 없었다
 저 달팽이 같이

무겁게 짊어지고 가야 할
 없어서 더욱 무거운 나의 집
 -성선경³¹⁾ '달팽이 집'
 집을 등에 이고 사는 것들은
 모두 달로 가야한다
 나뭇잎 위에 앉아있는 달팽이를 본적이 있는가
 배경으로 언제나 달이 뜬다
 집이 아니야 집이야
 그 집 속에는 아버지가 주무시고
 어머니가 손톱 깎으신다
 동생은 수학문제 풀고
 아버지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외출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은영³²⁾ '달팽이집'

얼마나 비좁고 고달픈 셋방살이기에 부모가 죽거나 외출했으면
 좋겠다고 할까? 하지만 전세 값을 돈으로 계산하지 않는 곳도 있
 다. 이런 아름다운 세상이 인간세계에도 존재하기를 시인은 꿈꾸
 었을 것이다.

풀잎이 / 전세를 놓았다
 풀벌레가 / 전세를 들었다
 풀잎은 / 전세값으로 노래를 받아
 풀벌레는 / 전세값으로 노래를 주어
 날마다 즐거웠다.
 -정갑숙³³⁾ '셋방살이'

그러나 지금 나에게 집이 있든 없든,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 보
 면, 우리는 참 많은 집들을 지니고 살았다.

내가 채송화처럼 조그마했을 때 / 꽃밭이 내집이었지.//
 내가 강아지처럼 가양가양 돌아다니기 시작했을 때
 마당이 내집이었지 //
 내가 송아지처럼 경중경중 뛰어 다녔을 때
 푸른 들판이 내집이었지 //
 내가 내가 / 아주 어렸을 때
 내 집은 많았지 / 나를 키워 준 집은 차암 많았지.
 -이준권³⁴⁾ '내가 채송화처럼 조그마했을 때'

다음호에 계속 ㉮

29) 1970. 충북 제천 *새들의 역사, 황금을 찾아서 외
 30) 1959. 충남 예산 *동시집 감장꽃
 31) 1960. 경남 창원 *날 뛰는 직녀에게, 몽유도원을 사다 외

32) 1970. 대전 *일곱 개의 단어로된 사진
 33) *말하는 돌
 34) 1949. 전북 정읍 *쑥쑥, 황야, 열 손가락에 달을 달고 외